

국가시책 최우선 순위는 안보강화

육군사관학교 제37기졸업식 유시

1981년 4월 3일

친애하는 졸업생, 내외귀빈,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육군사관학교 제37기 졸업식에 즈음하여, 나는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교육훈련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오늘 영예의 임관을 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2천년대 호국의 주역이 될 사관생도 육성에 온갖 열과 성으로 심혈을 다 바친 학교장 김복동장군을 위시하여 교수부 그리고 학교문부, 생도대 장병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또 한편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조국수호의 장도에 오른 이 시점은 우리가 위대한 자주민족국가를 바라보며 역사적인 제5공화국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여 우리 국군의 상징이며 군 발전의 주춧돌이 될 제관들의 늠름하고 쾌기찬 모습을 대하니 더없이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국수호의 정예장교로서 온 국민의 신뢰 속에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적화남침야욕을 분쇄할 뿐 아니라 필승국군의 전통과 용명을 우리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창군 이래 30여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나라는 내외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에 부닥쳐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와 오랫동안 대치해 온 북한공산집단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국가 안보면에 잠시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국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1월 12일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망동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 모든 어려움을 단결과 의지로 극복하면서 국력배양에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민주복지국가의 터전인 제5공화국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창조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간직한 제5공화국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2의 경제도약을 기약함으로써 정의롭고 부강한 조국을 기필코 이룩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시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가 안보의 강화에 두고, 국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굳건하게 수호하는 데 우리가 가진 능력과 충정을 최대한으로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패기에 넘친 신입장교 여러분!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오면서도 그때마다 투철한 애국심과 불굴의 호국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왔으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이처럼 강인한 민족의 얼과 슬기, 그리고 조국수호의 빛난 전통을 연면히 계승하여 막강한 국군의 금자탑을 쌓아왔습니다.

신입장교 여러분은 이러한 국군의 면모와 권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군의 주축이며 근간입니다.

지휘관이 우수해야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이제 임관과 동시에 국토방위의 대임을 부여받고 일선지휘관으로 출진하는 여러분에게 부과된 사명과 임무는 참으로 중차대합니다.

국가안보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국민 자신이라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지대하다는 것을 존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관들의 두 어깨에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엄정한 군율 밑에서 부하를 아끼고 상관을 존경하는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완수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곳 화랑대에서 배우고 익힌 지휘관의 자질과 군사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모든 면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군을 육성하는 데 헌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고향 이곳 화랑대의 얼을 깊이 간직하고, 교훈과 사관생도 신조를 되새기면서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장도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